2026. 1. 12 (월)

미국 3가지 이슈: 고용, 무역수지, 관세 판결

- 미국 12월 고용은 노동시장 확장 속도 약화가 느리게 진행 중임을 시사
- 미국 10월 무역적자 축소는 GDP와 관계 없는 금 수출 급증에 주로 기인
- IEEPA 관세 판결이 절충안으로 결정되더라도 주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불확실성 커질 수 있음. 2월 20일, 3월 20일, 4월 17일을 주목할 필요

경제분석
Economist 이승훈
seunghoon.lee@meritz.co.kr

RA 박민서
mspark@meritz.co.kr

미국 12월 고용: 12월 비농업 고용은 5만 명 증가에 그친 반면(컨센서스 7만), 실업률(4.38%)은 컨센서스(4.5%)을 밑돌았다. 시간당 임금은 11월 실적치의 상향 조정으로 전년대비 상승세가 확대(3.8%)되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노동시장 확장 속도 약화에 무게가 실린다. 첫째, 헬스케어, 레저/여가를 제외한 민간 고용이 12월에도 감소하였다(5월 이후 기업 리스크 관리 확대 징후). 둘째, 12월 실업률의 하락도 실상은 미국 출생자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기반한 것이다.

파트타임 일자리 밖에 구하지 못하거나 당장 구직을 못한 사람들의 수가 고공행진하는 것은 취직의 문이 점차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신, 노동수요가 공급을 하회하며 임금 상승률이 향후 둔화될 환경은 서비스 물가 안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연준은 6월 전후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10월 무역수지와 4Q GDP: 미국 10월 무역적자가 11년 2월 이후 최저치인 58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애틀랜타 연은 GDPNow 순수출기여도 전망이 대폭 개선되며 4분기 GDP 전망이 2.9%(QoQ SAAR)에서 5.4%로 상향 조정되었다. 9월 대비 적자가 186.3억 달러 줄어든 것인데, 여기에는 변동성이 큰 의약품 수입 감소 및 금 수출 급증이 자리했다. 의약품 수입은 다시 늘 수 있고, 금 수출은 GDP 집계 대상이 아니다. GDPNow에 찍힌 숫자보다는, 미국 4분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블룸버그 컨센서스: 1.0% QoQ SAAR).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번은 아니었지만, 향후 3개월 내 의견 제시하는 2월 20일, 3월 20일, 4월 17일 중 언제라도 판결은 나올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1) IEEPA 관세 전면 위법, 2) 절충적 판결, 3) 관세 합법이며, 2)-1)-3) 순으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의 경우 시장 충격이 가장 적을 것이나, 어디까지 절충의 대상이 될 것인지 범위가 매우 넓어, 주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불확실성 이 커질 수 있다. 한편, 1)과 3)은 미 국채금리 상승 재료이다. 1)은 성장 개선 기대와 더불어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3)은 제도적 위기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sue 1. 미국 12월 고용

(1) 비농업 취업자수

-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집계하는 비농업 고용은 12월 중 당사 예상에 정확히 부합하는 5만 명 증가(컨센서스 7만 명은 하회). 10~11월 고용도 속보치 대비 7.6만 명 하향 조정되었음. 2025년 비농업 고용은 58.4만 명 증가했고, 1~4월 증분(49.1만)이 연간 증분의 84%를 설명.

- 5월 이후 비농업 취업자수가 1) 대체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가운데, 2) 헬스케어/사회서비스, 레저/여가를 제외한 민간 고용은 9월을 제외하면 감소. 3) 제조업 고용은 5월 이후 8개월 째 감소 중. 이상은 4월 상호관세 제기 이후 기업들이 노동비용 절감 차원의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가능성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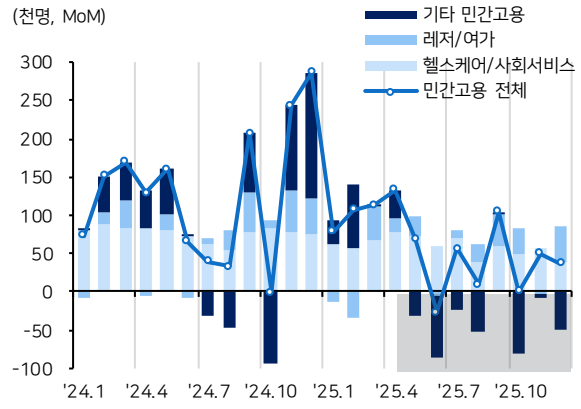
- 작년 5~12월 경제활동인구가 월평균 5.5만 명 증가. 가계조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다르지만, 대략 5만 명 내외를 Breakeven(실업률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비농업 고용 증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표1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천명, MoM)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5.10	'25.11	'25.12	연간
비농업 취업자수	**111**	**102**	**120**	**158**	**19**	**-13**	**72**	**-26**	**108**	**-173**	**56**	**50**	**584**
민간	79	107	114	133	69	-27	56	10	104	1	50	37	733
정부	32	-5	6	25	-50	14	16	-36	4	-174	6	13	-149
제조업	-5	8	1	0	-11	-17	-9	-11	-5	-9	-2	-8	-68
건설업	-3	12	5	0	2	-2	-3	-20	25	-13	22	-11	14
도소매	31	3	12	6	-13	-17	1	-1	32	-26	-18	-27	-16
운수창고,유틸리티	23	19	-19	-9	2	4	-5	2	-34	-5	-24	-6	-51
정보기술	-4	0	-2	1	2	-3	-6	-5	-3	-7	-3	0	-30
금융	14	15	3	5	7	-6	1	-15	6	1	0	7	38
사업서비스	-35	15	-11	27	-23	-24	-13	-13	-8	-16	13	-9	-97
일용 서비스	-8	-2	-14	17	-15	-10	-15	-10	-6	-24	-5	-6	-99
민간교육	-1	8	-2	7	-2	-8	9	-5	-4	-8	1	2	-4
헬스케어	62	57	67	79	72	59	71	40	59	50	58	39	713
레저/여가	-14	-34	45	18	27	-5	9	23	42	33	-3	47	188
숙박	-2	2	-1	2	1	-5	-1	-4	-1	2	2	3	-4
외식	-27	-39	38	15	15	-6	10	21	38	51	7	27	150
기타서비스	13	0	17	-3	10	-6	5	17	-5	1	8	5	62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미국 비농업 민간고용 증감 분해**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2025년 10~11월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 변화**

(천명, MoM)	New		Old		Diff (New-Old)		
	10월	11월	10월	11월	10월	11월	계
비농업 취업자수	**-173**	**56**	**-105**	**64**	**-68**	**-8**	**-76**
민간	1	50	52	69	-51	-19	-70
정부	-174	6	-157	-5	-17	11	-6
정부교육	-8	-1	-2	2	-6	-3	-10
제조업	-9	-2	-9	-5	0	3	3
건설업	-13	22	-1	28	-12	-6	-18
도소매	-26	-18	0	4	-25	-22	-47
운수창고,유틸리티	-5	-24	0	-17	-5	-7	-12
정보기술	-7	-3	-5	-4	-2	1	-1
금융	1	0	-3	-2	4	2	6
사업서비스	-16	13	-7	12	-9	1	-8
일용 서비스	-24	-5	-13	-5	-11	0	-12
민간교육	-8	1	-5	1	-3	0	-3
헬스케어	50	58	65	64	-15	-6	-21
레저/여가	33	-3	16	-12	17	9	26
기타서비스	1	8	2	3	-1	5	4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노동수급과 임금

-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시장 예상에 부합. 전년대비 상승률은 3.76%으로 시장 예상(3.6%)을 웃돌았는데, 이는 11월 임금상승률 상향 조정(0.1%→0.2%) 때문. 전년대비 임금 상승률은 11월 3.62%에서 높아졌음.

- 11월 대비 12월의 전산업 임금상승폭이 높아진 것은 12월 중 취업자수가 증가한 교육/보건(헬스케어), 금융, 레저/여가 등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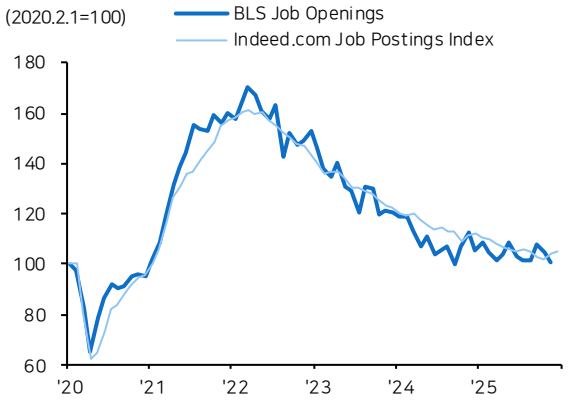
- 5월 이후로는 임금 상승률의 선행지표인 구인/실업자 배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10월 이후로는 1배 하회(11월 0.91배, 12월은 0.97배로 추정).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임금 상승률이 추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주거비를 포함한 서비스 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

표3 **미국 비농업 민간 업종별 임금상승률**

	25.12월	(% MoM: 분기 내 월평균 증감)			(% MoM)			(% YoY, 기말)				
	(달러)	2Q25	3Q25	4Q25	10월	11월	12월	2Q25	3Q25	10월	11월	12월
민간 전체	**35.0**	**0.31**	**0.35**	**0.32**	**0.44**	**0.24**	**0.33**	**3.74**	**3.74**	**3.75**	**3.62**	**3.76**
광업	39.8	0.09	0.41	0.31	0.84	-0.39	0.81	1.38	1.13	1.78	1.20	2.30
건설업	38.1	0.41	0.41	0.31	0.30	0.27	0.35	4.02	3.65	3.72	3.74	3.67
제조업	34.0	0.46	0.39	0.40	0.45	0.22	0.45	3.91	4.12	4.28	4.18	4.43
도매	37.6	0.10	0.29	0.10	0.20	0.20	0.13	2.90	3.68	3.68	3.48	3.77
소매	24.4	0.19	0.16	0.12	0.55	0.66	0.46	3.85	4.19	4.16	4.01	4.79
운송/창고업	30.6	0.54	0.35	0.15	0.25	0.28	0.13	2.68	3.25	3.20	3.26	3.32
유틸리티	50.9	0.22	0.27	0.05	0.75	0.58	0.37	2.48	2.91	2.57	3.44	3.49
정보기술	49.8	0.49	0.18	0.23	1.02	-0.26	0.62	5.25	4.92	3.77	3.66	5.04
금융	45.5	0.31	0.44	0.29	0.54	0.19	0.54	4.13	4.45	4.49	4.55	4.66
전문/사업서비스	42.2	0.37	0.35	0.39	0.34	0.22	0.22	4.86	4.73	4.59	4.19	4.02
교육/보건서비스	34.3	0.19	0.33	0.37	0.73	0.03	0.25	3.09	2.48	2.99	2.55	2.57
레저/여가	22.0	0.44	0.37	0.26	0.26	0.48	0.43	3.59	3.65	3.59	3.81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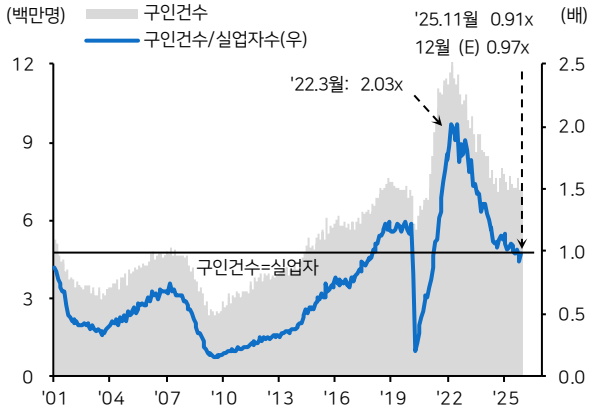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구인건수: 미국 노동통계국(BLS) vs Indee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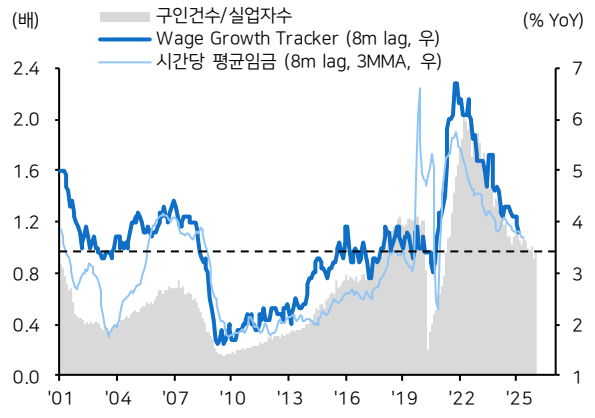
자료: US BLS, Indeed.co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구인건수 및 구인건수/실업자수 배율**



주: 12월 구인건수는 730만 명으로 추정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4 미국 구인/실업자 배율과 임금 상승률



자료: US BLS, Atlanta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Atlanta Fed Wage growth tracker와 서비스 물가 상승률

자료: US BLS, Atlanta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 실업률과 가계조사

- 12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4.38%로 11월 4.54%에서 낮아졌음. 12월의 실업률 하락분(-0.16%p)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인구 재편입자 감소(-0.17%p)로 설명.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한 달 사이 소폭 하락(62.45%→62.40%)한 것과 부합

- 12월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이민자 추방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음. 해외 출생자의 참가율은 7월을 저점으로 재반등하고 있기 때문. 미국 출생자 참가율 하락이 이유이며, 광의 실업률(12월 8.4%) 통계에 포함되는 1) 4주 이내 未구직 인원 및 2) 경제적 이유로 파트타임만 뛸 수 있는 인원수가 늘거나 고공행진 중임은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노동시장이 진화하고 있을 가능성 내포

- 한편, 12월에는 가계조사 과거 시계열 조정(2021~)이 있었음. 2025년 실업률 조정도 있었는데, 최대 0.03%p 변화이기에 대세에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님.

표4 미국 실업상태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기여도

(천명)	'25.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Job losers: 일시해고	867	874	860	940	886	833	1,002	929
Job losers: 영구실직	1,918	1,916	1,887	1,887	1,925	2,023	1,936	1,969
Job losers: 계약만료	670	668	546	577	627	669	623	575
Job losers: 소계	3,455	3,458	3,293	3,404	3,438	3,525	3,561	3,473
자발적 사직	855	704	825	784	784	861	861	832
경제활동인구 재편입	2,235	2,288	2,145	2,180	2,287	2,325	2,600	2,337
경제활동인구 신규편입	701	725	710	985	786	813	774	840
실업자 계	7,166	7,237	7,015	7,236	7,384	7,603	7,781	7,503
경제활동인구	171,054	170,492	170,380	170,412	170,750	171,261	171,541	171,495
(기여도, %p)								
Job losers: 일시해고	0.507	0.513	0.505	0.552	0.519	0.486	0.584	0.542
Job losers: 영구실직	1.121	1.124	1.108	1.107	1.127	1.181	1.129	1.148
Job losers: 계약만료	0.392	0.392	0.320	0.339	0.367	0.391	0.363	0.335
Job losers: 소계	2.020	2.028	1.933	1.998	2.013	2.058	2.076	2.025
자발적 사직	0.500	0.413	0.484	0.460	0.459	0.503	0.502	0.485
경제활동인구 재편입	1.307	1.342	1.259	1.279	1.339	1.358	1.516	1.363
경제활동인구 신규편입	0.410	0.425	0.417	0.578	0.460	0.475	0.451	0.490
실업자 계	4.189	4.245	4.117	4.246	4.324	4.439	4.536	4.375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5 2025년 경제활동인구 추계 변화에 따른 실업률 조정 내용

(천명, %)	New			Old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실업률
'25.1월	170,696	6,849	4.012	170,744	6,849	4.011
2월	170,441	7,052	4.138	170,359	7,052	4.139
3월	170,641	7,083	4.151	170,591	7,083	4.152
4월	171,054	7,166	4.189	171,135	7,166	4.187
5월	170,492	7,237	4.245	170,510	7,237	4.244
6월	170,380	7,015	4.117	170,380	7,015	4.117
7월	170,412	7,236	4.246	170,342	7,236	4.248
8월	170,750	7,384	4.324	170,778	7,384	4.324
9월	171,261	7,603	4.439	171,248	7,603	4.440
11월	171,541	7,781	4.536	171,571	7,831	4.564
12월	171,495	7,503	4.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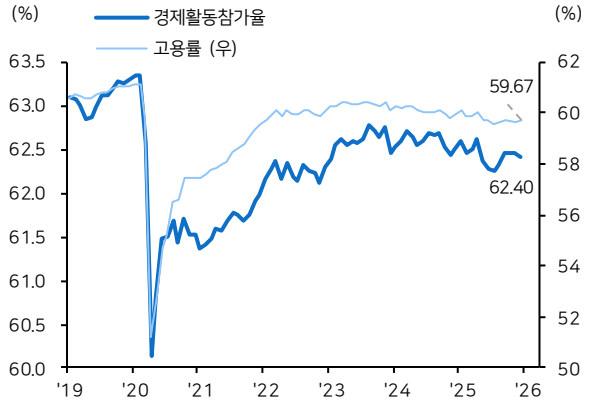
주: 계절조정계열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6 챌린저 보고서: 해고 통보 주춤한 상태

(명)	12월	2025년
DOGE	-	293,753
시장/경제적 여건	8,120	253,206
폐업	12,949	191,480
구조조정	5,356	133,611
비용절감	975	81,392
AI	142	54,836
파산	70	38,883
M&A	4,427	25,622
기타	3,514	133,591
총계	**35,553**	**1,206,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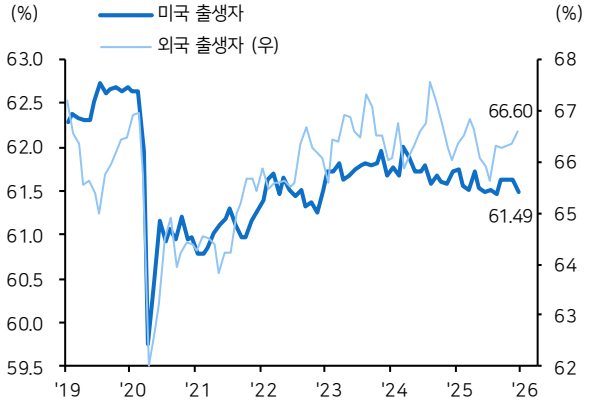
자료: Challenger, Gray and Christma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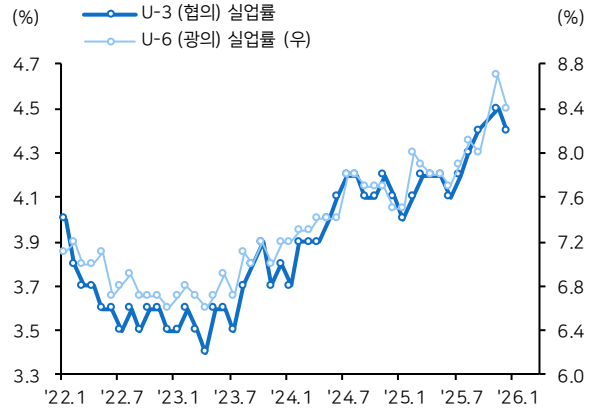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Native born vs Foreign b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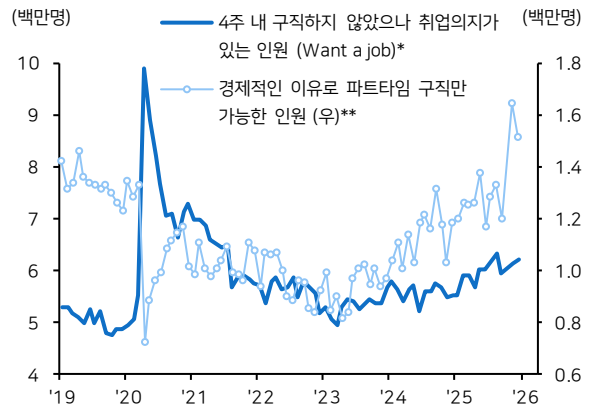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미국 실업률: U-3 vs U-6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광의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추이



주: * U-4 ~ U-6에 해당, ** U-6에 해당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Issue 2. 미국 10월 무역수지와 4분기 GDPNow

- 1월 8일, 미국의 작년 10월 무역적자(기관: US Census Bureau)가 585.7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1년 2월 이후 최저치로 발표된 직후, 애틀랜타 연은의 4분기 GDPNow가 2.9%(QoQ SAAR)에서 5.4%로 상향 조정. 순수출기여도 전망의 큰 폭 상향 조정(-0.31%p→+1.97%p)에 주로 기인.

- 9월 무역적자(772.0억)와 비교했을 때는 적자폭이 186.3억 달러 줄어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출이 71.7억 달러 증가, 수입이 114.6억 달러 감소했음. 주지할 사실은, 한 달 사이 수출 증가분 중 68.4억 달러는 비(非)화폐성 금 수출(nonmonetary gold)이며, 수입 감소에는 변동성이 큰 의약품(-143.1억 달러)과 금 수입(-13.7억 달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임.

- 비화폐성 금은 산업용(보석, 시계, 전자기기 부품) 혹은 투자 목적(가치 저장 및 인플레이션 헤지)으로 쓰임. 경제통계국(BEA)이 국민계정을 산정할 때는 금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자를 제외하고 산정함(링크). 따라서 금 수출입 변화에 따른 순수출기여도 확대는 과대계상 되었을 가능성이 큼. 의약품 수입도 변동성이 큰 만큼, 11~12월 의약품 수입 증가 가능성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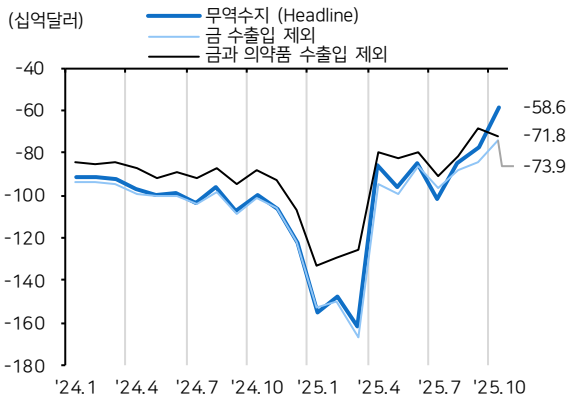
- GDPNow는 자기회귀의 성격이 강하여 4분기 셧다운 효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전술한 순수출 기여도 과대계상 가능성과 더불어, GDPNow에 표현된 숫자에 비해서는 미국 4분기 GDP 성장 기대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 Bloomberg consensus는 현재 1.0% (QoQ SAAR 기준).

표7 4Q25 GDPNow 추정치 변화

Date	Major Releases	GDP
23-Dec	Latest BEA estimate for 25:Q3	4.3
23-Dec	Initial GDPNow 25:Q4 forecast	3.0
5-Jan	ISM Manufacturing Index	2.7
6-Jan	Auto sales	2.9
7-Jan	ISM Services, M3-2 Manufacturing	2.9
8-Jan	**International trade, Wholesale trade**	**5.4**
9-Jan	Employment Situation, Housing starts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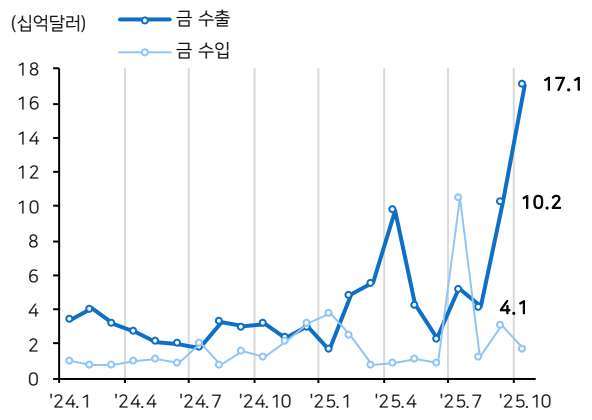
자료: Atlanta Fed GDPNow,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미국 무역수지 (계절조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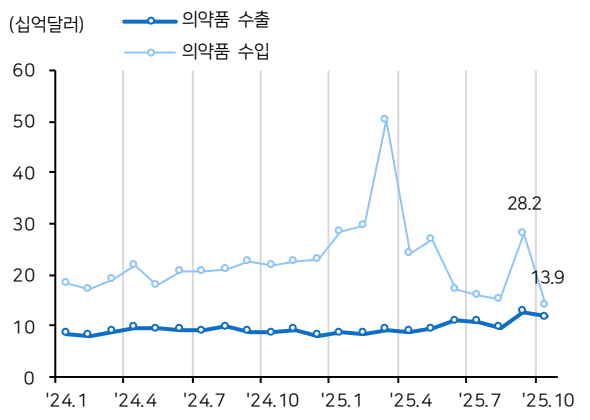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미국 금 (nonmonetary gold) 수출입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미국 의약품 (Pharmaceutical preparations) 수출입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Issue 3. 미국 IEEPA 관세 대법원 판결: 무엇을 봐야 하는가?

- 8월 30일 미국 항소법원(2심)에서 7:4로 위헌판결이 난 이후, 백악관이 재항고하여 9월 9일 연방 대법원이 IEEPA(긴급경제권한법, 1977)에 근거한 관세 부과 위법 여부를 수용. 11월 5일에 1차 심리가 이루어졌음. 1~2심이 3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일각에서는 1월 9일에 대법원이 판시할 것이라 예상했었음.

- 1월 9일이 유력한 판시일로 거론된 이유는 올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Non-Argument Day" 이었기 때문임. 이 날은 의견을 제시하는 날임. 향후 3개월 내 의견 제시일은 2월 20일, 3월 20일, 4월 17일(링크 & Calendar Info를 참고). 동 날짜가 근접할수록 다시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갈 것이라 사료됨.

- 사법적 판단이므로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다음 페이지 표 8과 같음: 1) IEEPA 관세 전면 위법, 2) 절충적 판결, 3) 관세 합법.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2)-1)-3) 순이며, 2)가 금융시장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어디까지 부분 위법이며 절충의 여지가 될 것인지 그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최종 판시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며, 절충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이 부재하면 이 역시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음.

- 1)과 3)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 국채금리 상승 재료로 판단. 1)의 경우 Stagflation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즉, 성장에 우호적 재료)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번질 수 있기 때문. 3)의 경우 가능성 가장 낮고, 현실화되면 제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음.

표8 미국 IEEPA 관세 대법원 판결 시나리오

구분	① IEEPA 관세 전면 위법 판단	② 부분 위법 / 절충적 판결	③ 관세 합법 판단 (유지)
판결 의미	▪ 법원이 IEEPA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 ▪ IEEPA에 근거한 관세 전부 위법 판시	▪ 법원은 현행 방식의 광범위한 관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 단, 일부 조정 · 제한 하 관세를 인정하거나 불소급 적용	▪ 대법원이 IEEPA가 현재와 같은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고 판단
핵심 법리	▪ 하급심과 동일한 판단: 비상경제법을 관세 일반권한으로 해석할 수 없음	▪ 권한은 인정하되 범위 · 방식에 한계 부여	▪ 행정부의 비상권한 해석을 전면 수용
관세 효력	▪ 관세 무효화, 철회 가능	▪ 관세 축소 · 변형된 형태로 존속	▪ 관세 전면 유지
환급(Refund)	▪ 수입업자에게 관세 환급 가능성 → 약 1,500억 달러 이상 청구 가능성	▪ 부분 환급 또는 상한 설정 가능 ▪ 일부 업자만 환급	▪ 환급 없음
경제/시장 영향	▪ 유통업, 수입 기업에 긍정적 ▪ Stagflation 압력 약화 가능성 반영 ▪ 단, 관세 수입 감소로 국채금리 상승	▪ 단기 충격 제한적 ▪ 판결의 구체화 정도 따라 불확실성 잔존	▪ 제도적 위기(institutional crisis) 반영 가능성 ▪ 미 국채 급락 혹은 약달러 심화 위험
재정 영향	▪ 연방정부 관세 수입 감소 → 예산 전망 및 재정계획 차질	▪ 관세 수입은 유지되나 규모 축소	▪ 관세 수입 현상 유지
행정 · 사법 절차	▪ 환급 범위 · 집행 방식 관련 소송 개시 가능	▪ 하급심으로 환송(remand) → 환급 · 적용 범위 세부 조정	▪ 추가 절차 거의 없음
왜 현실적인가	▪ 변론 과정에서 보수 성향 판사들까지도 "수십 년 된 비상법으로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는 데 회의적" 입장 표명	▪ 대법원이 정부 권한 사건에서 자주 택하는 절충적 접근	▪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낮음
확률 평가(시장 · 분석가)	▪ 2안 다음으로 유력	▪ 가장 유력	▪ 낮음
후속 조치들	▪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232 · 301조 등)로 관세 재설계 시도	▪ 행정부 · 기업 모두 불확실성 속 대응	▪ 야당은 주(州) 단위, 규제 소송으로 전환 ▪ 의회가 권한 위임 재검토 가능

자료: LSE, Reuter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9 미국 관세의 영향: 관세 수입, 실물 충격, 동태적 장기 영향

		Conventional Score					Additional Dynamic Effects		
		2026-2035 관세수입		In Equilibrium					
		수입 (십억달러)	% of GDP	PCE 물가지수 충격 (%)	인당 실질 가처분소득	실효관세율 (대체효과 고려, %)	4Q25 GDP 충격 (%p)	장기 GDP 수준 충격 (%)	2026~2035 동태적 세수 (십억달러)
5월 29일	관세 위법판결	$686	0.2	0.58	($951)	7.0	(0.18)	(0.06)	($101)
10월 17일	상호관세 부활*	$2,527	0.7	1.34	($2,433)	14.6	(0.52)	(0.42)	($472)

주: * 일본, 인니, 베트남 무역합의 철강 관세 인상, 목재 관세 적용

자료: "State of U.S. Tariffs", Budget Lab at Yal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